



코스피, 사상 첫 9,000선 돌파

연준 긴축 경계감 높아지며 이익 체력 강한 종목의 선별적 강세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9,063.84pt (+2.25%)	1,000.93pt (-3.01%)	1,459.23pt (+2.9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26.20 원 (+10.7 원)	4.1050% (+3.4bp)	7,548.00pt (+0.7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805 억	+3,927 억	+1,470 억
외국인	+12,761 억	-1,252 억	-878 억
기관	-7,775 억	-2,650 억	-1,27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 강세에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기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기준 금리가 동결됐지만,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취임 후 첫 FOMC를 주재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美 증시 전반이 하락했으나 반도체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금리 부담에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및 해당 종목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KOSPI는 2.35% 올랐고, KOSDAQ은 3.03%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49.6조원, KOSDAQ은 약 9.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1.3조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기계/장비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8천억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보험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 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BIG2의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관련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며 SK스퀘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상승했습니다. MLCC와 반도체 기판 업황 호조에 삼성전기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력기기, 자동차, 조선, 방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8.27%), SK하이닉스(+6.51%), 삼성전자(+4.62%)가 올랐고, 한화오션(-6.01%), LSELECTRIC(-5.10%), 현대차(-2.75%)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